

정월대보름 율놀이행사로 전통의 맥 잇는다

길림시 율놀이행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당지 조선족사회 정규적 문화행사로 고착



▲ 정월대보름 율놀이 현장

길림시 조선족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가 2월 24일 길림시 조선족중요문화유산 민속관에서 펼쳐졌다.

오전 8시, 행사장은 민족복장을 차려입은 율놀이 선수들로 명절의 분위기를 다분했다.

복적인 행사장 도처에서는 현장 라이브방송을 하는 '왕홍'들의 모습이 유풍하게 눈길을 끌었다.

길림시조선족중요문화유산에서 조직한 율놀이대보름 율놀이 행사는 왕년

과 달리 청년조와 로년조로 나뉘어 시합을 치르게 되었는데 율놀이 시합에는 길림시 조선족 중소학교와 길림시 조선족로년협회,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길림시아리랑합창단, 길림시조선족탁구동호회, 길림시세종한글학교, 영길조 1중 87동창회 등 길림시 조선족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57개 팀, 근 300명 선수가 참여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에는 길림시 본지뿐만 아니라 매하구, 귀



▲ 조선족전통먹을 시식중인 '왕홍'들

주 등 전국 각지 유명 왕홍들도 몰려왔어요." 길림시조선족중요문화유산 민 관장은 본관의 1층 민속관에 행사를 마련한 데는 왕홍들에게 보다 많

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행사장에 특별히 조선족 전통먹시식 코너도 설치해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조선족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농경사회에서 율놀이는 그 해 일년 농사를 마치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가족 끼리 혹은 이웃들과 함께 모여 즐기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이다.

길림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보편적으로 율놀이를 즐기고 있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지난해 세기 70년대말부터 길림시조선족중요문화유산에서는 우리 민족 정서가 다분한 세시풍속인 율놀이를 당지 조선족사회의 정규적인 문화행사로 고착시키기 위해 모듬지기 심혈을 기울여왔다.

길림시조선족중요문화유산의 근 반세기에 이르는 꾸준한 노력으로 율놀이는 길림시와 성급의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2021년에는 드디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꽃을 피웠으며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길림시조선족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는 길림시정부에서 주관하고 길림시조선족중요문화유산에서 주최하는 정부 공식행사로 자리잡아 길림시 조선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 차영국기자

길림지역 문익코너



안제부터인지 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여기서시간만 되면 산행팀을 따라 여기저기 산을 누비고 다녔다. 처음에는 야트막한 산도 숨이 턱에 차서 험뎠기며 올랐는데 차츰 다리에 힘이 붙었는지 꽤 높다 하는 산도 거뜬히 오를 수 있었다.

산은 갈 때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녀인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봄에는 거무죽죽한 나무가지들에서 싱그러운 새 움들이 발돋움하고 울창한 숲속에서 매미들이 낮 낮 울어대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수줍게 물이 든 단풍이 나무잎을 불태우며 우리를 맞이했고 눈바람 훑날리는 겨울에는 우뚝 솟은 새하얀 동화세계를 두 눈을 행하니 뜬 채로 꿈꾸게 하였다.

산을 누비면서 장엄하고 푸근한 산 구경은 물론 울적해진 심경도 치유하고 힘들게 정상에 오른 후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부심도 생겨났다. 구슬땀을 흘린 후에 다정하게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참을 먹을 때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

투를 가방 뒤 고리에 달고 다녔다. 옆구리가 터진 듯한 쓰레기통 주위 지저분한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황산에 갔을 때의 일이다. 황산은 중국의 5A급 풍경구로서 산경치도 천하제일이라는 명산에 걸맞게 장엄하고 준수했다. 굽이굽이 산봉우리 사이를 감돌면서 겹겹이 펼쳐지는 구름바다에 황홀한 마음을 쏙 빼앗기기도 했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련화봉과 함께 두 손을 들고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등산길 내내 어느 산과는 달리 아주 깨끗했다. 청소부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아기가 기하게 돌로 조각한 쓰레기통도 품위 있게 여기저기 점잖아 앉아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상이 제일 깊은 것은 해발 1,864미터인 황산에서 제일 높은 련화봉에까지도 깔깔한 쓰레기통을 돌로 조각해 놓은 것이었다. 어느 황제 같은 손님이 황산 틈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을지, 그리고 힘겹게 청소하러 올라오는 청소부아저씨를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올라야 거기까지 올 수 있을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는 등산이 사치였지만 지금은 차츰 문화와 스포츠로 눈길을 많이 돌리기에 등산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났다. 산마다 일요일이면 사람들로 넘쳐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쏟아져가고 있을 때 등산 매너 또한 시급히 보급해야 할 바이다.

민간단체에서 펴업업 쓰레기수거라는 테마를 내걸고 등산을 조직하는 것을 보았다. 산마다 쓰레기통을 늘리고 청소부를 투입한다 해도 문제 해결에는 가뭇물 한 잔일 뿐이다.

한국의 내장산은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지만 깨끗하기로 푸른 숲만 무연히 펼쳐졌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량의 쓰레기를 잘 관리해 준다면 우리의 산은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펴업업 대는 량심의 성도도 줄어든 것이고 쓰레기통 주위의 지저분한 양상도 개선될 것이다.

다 큰 아이에게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혼자 먹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듯 등산객들도 누군가의 뒤따라다니는 자를 자원으로 쓰레기를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등산인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래야 바람 부는 날에도 산에 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등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봉

중국 대두가공기업 50 강 - 화전 출채농업... 새해 힘찬 출발

화전시 농업산업과 국가급 중점기업인 길림출채농업제품개발유한회사는 1월달 4,176만원의 판매 실적을 이루어 동기 대비 8.6% 성장했다.

설기간에도 출채농업회사의 제품 생산 라인은 쉴 틈이 없었다. 출채농업의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3만톤 대두단백곡수와 5만톤 대두단백유로, 5만

톤 대두단백분 등 항목이 건설중이다. 출채농업회사는 대두 전 산업사슬 표준화 생산에 주력해온 회사다. 출채농업회사의 공기업은 전국 20여개 도시로, 특색 단백질곡수와 두피 등 제품은 유럽과 미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2023년 출채농업회사의 전년 생산

액은 5.1억원으로 전국 식용유 가공기업 50강에 들어갔다.

출채농업회사의 쾌속 성장은 당시 정부와 기업의 상호 협력의 결과물이다. 작년 화전시는 대두 재배 보조금 신청책을 내놓았다. 대두 재배 보조금을 원래의 무당 450원 미만에서 6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절해 당지의 대두 재배 면

적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출채농업회사는 화전지역의 13개 대두재배전문협회사, 2개 가정농장과 대두 재배 계약을 맺었는데 금년에 대두 4,500무를 재배하게 되며 대두 재배 180가구 농가의 인당수입은 4,500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중국신문넷

반석시 취재하진, 령지산업 규모화에 박차

겨울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반석시 취재하진은 새해 령지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령지산업은 국가급 농업강진인 취재하진의 식용군 특색산업으로 취재하진 전면 진흥에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취재하진의 여러 촌을 책임진 간부와 기술인, 재배전문가들은 령지산업에 여러 촌을 담당하며 재배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지와 수원, 전력, 교통 등 다방면에서 조사연구를 했다.

작년 11월초부터 취재하진에서는

재배 하우스 100개를 세우고 인원을 조직해 령지군 재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년간 취재하진은 특색산업 발전이 바로 향촌 진흥 추동력이라는 인지에 당지의 지역우세, 자원우세를 빌어 당지 농민들을 묶어세우고 령지산업의 규모화에 박차를 가했다.

농민들의 돈주머니도 채우고 향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령지 규모화 재배로 취재하진의 울거울은 일순들이 바쁘다.

/ 길림일보



图说 我们的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河南舞阳 张新亮作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